



유관순과 함께 춤을

Worship with the Little Girl



이것은 병천 소년소녀들의 찬양입니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점시 두 개 콩밥 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데헤이 에헤이 데헤이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장날의 붉은 꽃

추 교 람



十 추교람

장날의 붉은 꽃

Prologue

꽃이 피고 난 후

“꼭 봐야겠어? 위험하다니까?”

“여기서라면 괜찮을 거야, 언니.”

“관순아, 천천히 좀 가!”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왜인지 모르게 계속해서 장터로 돌아가려던 관순이를 몇날 몇일을 뜯어 말렸다. 내 간곡한 만류에도 관순이는 회귀본능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했고 기어이 장터가 보이는 위치로 오르기 시작했다. 장터가 보이는 위치에 올라서자마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쓰러진 사람들을 돕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장터를 내려다보이는 위치에 올라서자 관순이는 움직임을 멈추었다.

“김씨, 조금만 참아!”

“여기 물 한잔만 갖다 주셔!”

신음소리와 통곡소리가 끊기는 일 없이 계속해서 귀를 찢어온다. 살이 벗겨진 팔을 잡고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땀을 흘리고 허공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어머니를 흔들며 눈물을 흘리는 아이도 있었다. 장날이 열렸던 신나는 날. 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어야 할 그곳에 웃음을 짓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곳에 있었던 것은 절망과 슬픔, 고통뿐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극을 관망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

내 옆의 관순이는 아무말 없이 땀을 놓은 듯하면서도 슬픈 듯 아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관순아, 이제 가야해.”

“.....”

관순이와 나는 헌병들의 핵심검거 대상이다. 장터의 모두들에게 죄책감이 들었고 죄송했지만 이곳에 오래 머무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관순이는 대답이 없었다.

“관순아...?”

“....”

관순이는 대답이 없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관순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

“.....뭐?”

처음에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한번 물었다. 제대로 듣지

못해서 물은 말이 아니었다. 관순이의 말이 거짓이기를 바라면서, 내가 잘못 들었기를 바라면서 한 물음이었다. 그럼에도 관순이는 친절하게도 다시 한번 말해주었다.

“혼자 가. 난 안갈거야.”

Episode 1.

새싹

덜컹덜컹!

뿌우우우!!!

기차가 출발한다는 우렁찬 소리에 나와 관순이는 반사적으로 기차를 뒤 돌아보았다. 우리를 천안으로 보내준 기차가 덜컹소리를 내며 멀어져간다. 3월 13일. 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평범한 날. 우리는 고향인 천안으로 돌아왔다.

관순이는 씨익 웃으며 조용히 품에 숨겨왔던 종이를 꺼냈다. 돌돌 말린 종이.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종이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한 없이 부드러운 종이. 그러나 우리는 이 작은 종이 하나에 우리의 운명을 걸었다.

고향으로 온 사실에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주고 받던 그때.

터벅터벅

기차역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총칼을 들고 어슬렁 거리는 헌병들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들어왔다.

“언니, 빨리 나가자.”

돌돌만 종이를 재빠르게 가슴에 숨긴 관순이는 나의 손을 잡고 출구로 발걸음을 돌렸다. 관순이에게 끌리다 시피 빠르게 출구로 나아갔다.

그렇게 헌병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기차역에서 벗어나자 우리는 잠시 멈추어 숨을 골랐다. 그리고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고향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따뜻한 햇빛 사이로 간간히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바람 덕분에 잔디와 꽃, 나무 가지들이 산들산들 흔들렸다. 간간히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기분좋은 풀내음. 고향으로 돌아왔음이 실감났다. 고향을 떠나 이화학당으로 간 것이 몇년 전이었던가.

소녀시절 이곳을 나온 난 어엿한 숙녀가 되어 다시 이 땅을 밟고 있었다. 옆을 돌아보니 관순이 또한 나와 같은 풍경을 보고 있는 듯 눈을 반짝이며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있었다.

관순이는 10살 때 이곳을 떠났었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나보다 6살 어린 관순이는 나보다 이른 나이에 고향을 떠났다. 그렇게 어린나이에 고향을 떠나는 일을 겪으며 자랐음에도 관순이는 이화학당에서 그 누구보다 정의롭고 올바른 아이로 자랐다.

“정말 오랜만이야. 언니!”

“간간히 돌아왔었잖아? 새삼스럽게.”

“그래도 기분은 완전 다르지, 언니!”

관순이가 환히 웃으며 말했다. 신난다는 듯이 잔디 앞에 앉아서 말하던 관순이의 표정.

그러나 곧 관순이의 표정은 한순간에 진지해졌다.

“이건 일본놈들 때문에 오게 된 거니까.”

관순이의 입에서 싸늘한 목소리가 나온다. 관순이의 말이 맞다. 우리는 일본놈들의 휴교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온 것이었으며, 우리가 돌돌

말아 들고 온 종이는 독립선언서였고, 이곳 천안에서 만세운동을 벌여 독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독립선언서를 들고 여기까지 내려왔다.

“갈까..?”

“...그래.”

관순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관순이는 이 말을 끝으로 묵묵히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고 난 후 나 또한 관순이를 따라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Episode 2.

즐기와 앞

나와 관순이는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아버지와 큰아버지를 찾아갔다. 독립선언서를 보시고 큰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대체 이게 뭐여?”

“독립선언서....”

“내가 진짜 이게 뭔지 몰라서 물어봤을것 같어?”

독립선언서에 대해 설명하려던 나와 관순이의 말을 큰 아버지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며 자르셨다.

“아이고..역시 너거들이 암전히 돌아올리가 없재..”

나와 관순이를 보고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때 관순이가 갑작스럽게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나라 전체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는데 우리 동네만 조용해서야

되겠어요?”

“관순아, 애다야. 지금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하는 말이어?”

“우리는 괜찮아, 독립운동하는거.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떡할겨? 그 사람들이 다치기라도 하면 어쩔겨?”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기만 해서는 안되는 거잖아요?!”

가족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며 우리를 진정시키려 했고 무작정 반대하시는 것처럼 들렸던 가족들의 말씀에 나도 모르게 언성을 높여버리고 말았다. 이 일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나도 관순이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자신이 있었다. 이미 3.1운동에 한번 참여한 우리는 독립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고 독립운동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완고하셨던 아버지와 큰아버지도 관순이와 나의 몇날 몇 일 동안 계속되는 설득에 결국 질리셨다는 듯 독립운동에 참여하신다는 약속과 더불어 도움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 독립에 기여하는 일이니 기쁘게 참여하겠다는 가족들의 말은 언뜻 듣기엔 너무나 좋았지만 걱정이 가득한 표정을 보니 마냥 좋아할 수 만은 없었다.

“마을 주변분들을 불러올게, 이야기 한번 해봐도 괜찮겠어.”

그럼에도 아버지와 큰 아버지가 나서서 사람들을 불러오겠다고 하셨다. 가족들이 함께 나서니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다. 몇일이 지나고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지령리 교회 교인분들과 가까이 있던 장명교회 교인분들이 모였다. 아버지와 큰 아버지의 도와주시니 정말 쉽게 모일 수 있었다. 교회 교인분들은 대다수가 만세 운동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셨다. 그러나 모두가 적극적인 도움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이거 잡혀갈 수도 있는 일이여...꼭 이런 위험한 일에 나서야겠어?”

“독립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하기 싫으신 건가요?”

“어허, 이 당돌한 것들좀 보게..?”

“저희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 만세를 불러주시기만 하면 돼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않아요?”

“그거야 가능한 하지만...”

“고마워요 아저씨!”

“...”

예상했던 대로 처음에는 떨떠름한 반응을 하시던 교인분들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의 계속되는 설득에 짧게 한숨을 내쉬곤 결국 아버지와 큰 아버지처럼 도움을 약속하셨다.

가장 걱정이 많으셨던 조인원 아저씨와 다른 교인분들과 이야기가 정리되자, 우리는 만세운동을 조직하기 위해 협조를 구하러 다니기로 했다.

“만세운동 준비는 이곳 지령리 교회에서 하는 걸로 하지. 이왕하게 된거 제대로 해보자고.”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버지와 큰 아버지, 조인원 아저씨나 지령리, 장명교회 교인분들의 덕분에 만세 운동을 계획하는 것은 매우 수월하게 진행 되었다. 수신면의 장명교회와 장명학교를 통해 주민분들과 교인분들, 학생분들과 만날 수 있었고, 교인분들과 학생분들에게 만세운동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다. 지령리교회와 장명교회와의 이야기가 정리되자 나와 관순이는 청신학교와 진명학교를 찾아가게 되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김구옹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김구옹 선생님은 다행히 우리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셨고 만세운동을 지지해주셨다. 또한 김구옹 선생님 도움으로 여러 교인분들과 학생들에게도 만세운동이 연결되기 시작하였다.

“독립을 위한 일인데 당연히 해야지. 걱정하지 말어.”

김구옹 선생님의 도움으로 청신의숙과 병천면 성공회와도 연결되었고, 동면 용두리 주민분들과 교인분들과도 연결이 되었다. 처음에는 가족에게 부탁했던 이야기가 곧이어 교회와 주민분들께 연결되었고, 교회와 주민분

들과의 연결은 천안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물론 모두가 긍정적인 반응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하겠다 다짐한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결정된 바였기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 우리는 각 마을을 돌아다녔다. 그러나 천안에는 지금 일본 헌병의 포살령이 존재했고 포살령으로 인해 남성들의 움직임에 제약이 심해졌다.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득과 소식을 직접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일단 급한대로 여성분들만 움직이려 하였으나 그 방법만으로는 무리가 있었다. 의욕과 활력을 넣어 모두가 적극적인 태도로 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찾아가기로 한 것이지만 체력적으로 부족한 여성들만으론 힘들었다. 또한 한 분이라도 걸리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수도 있었기에 우리는 조심히 움직일 수 밖에 없었다.

더욱 효과적으로 모두에게 만세운동의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고민하고 있던 찰나, 논밭에서 뛰며 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며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귀엽기도 했고 알밋기도 했다. 그러나 노는 것에만 집중하여 반짝거리며 빛나는 눈과 순수한 웃음을 흘리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어딘가 뜬금없었다.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어렸을 땐 나도 관순이도 노는 것에만 진심이었는데...

그렇게 혼자 추억에 젖으며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던 그때 관순이가 나를 불렀다.

“언니, 이러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라도 났어?”

“지금 다들 뜻은 있지만 헌병들 눈치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잖아? 그러나 헌병들이 신경 안쓰는 아이들을 연락망으로 쓰는거야.”

“관순아, 어린 애들을 쓰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언니, 나도 아직 어린애야. 그러니 괜찮을거야. 다들 푹푹한 애들이니까.”

나에게 이야기한 후 관순이는 바로 아이들에게 만세운동의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몸을 돌렸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재빨리 관순이를 붙잡았다. 아무리 상황이 급하다 해도 이런 위험한 일을 아이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관순이는 푹푹한 눈으로 나를 말없이 돌아보았다. 입가에는 개구쟁이같은 미소가 걸려있었다. 확실히 이것 이외에 좋은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다. 관순이의 말처럼 적당히 나이를 먹은 아이들이 있었고, 모두 푹푹한 아이들임은 틀림 없었다. 결국 방법이 없던 나는 관순이가 실패하기를 바라며 일단 허락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내 함승과 함께 후다닥 달려간 관순이는 곧바로 아이들을 불러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니 관순이도 참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무작정 저런다고 애들이 들어줄리가...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일에 가담하는 일이니 당연히 도망갈 줄 알았다. 그러나 곧 관순이 특유의 리더십이 아이들에게도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관순이의 부탁에 어떤 아이도 싫은 티를 내지 않았으며 진지한 눈으로 관순이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고 곧이어 심부름을 시작했다.

...저게 된다고?

어이 없어 하는 나를 보곤 관순이는 의기 양양한 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어린이 연락망이 효력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연락망으로 쓴다는 작전에 죄책감이 조금 들었지만 이 작전의 효과는 상상이상이었다. 충분히 나이를 먹은 남성들만 주시하던 헌병들은 아이들과 여성을 신경쓰지 않았고, 연락은 보다 빠르게 지역에 퍼져나갈 수 있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이렇게까지 잘해줄줄은 몰랐는데...”

“...솔직히 나도 몰랐어.”

“누나! 다 하고 왔어!! 이제 뭐해?”

“어...오늘은 이제 쉬어.”

아이들의 노력덕분에 우리가 할 일도 매우 수월해졌다. 처음에는 우리 가족과 교인분들 몇분만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고생했었지만 이젠 모두가 짊어지던 무게가 아이들의 덕분에 가벼워진 것이 느껴졌다.

그렇게 또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만세운동 전개일까지 정해져버렸다. 만세운동을 전개하는 날은 4월 1일. 음력으로 3월 1일이 되는 날이었다. 또한 이날은 장날이기 때문에 아우내에서 장이 열릴 예정이었다. 정말이지 안성맞춤인 날이 아닐 수 없었다. 여러 위험이 있었지만 어린이 연락망을 통해 우리는 사람들에게 만세 운동의 날짜와 장소를 알리는 것에 성공했다.

...

그렇게 시간이 지나 3월 31일, 거사가 열리기 전, 마지막 날 밤.

나와 관순이는 각 마을에게 전달한대로 만세운동의 마지막 확인인 봉화를 올리기 위해 매봉산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봉화를 올리는 날이 되는 이 순간까지도 우리들을 도와주었다.

“누나들 화이팅!!”

“고마워 애들아. 이제 들어가도 돼.

우리가 산으로 향하는 동안 끝까지 마중하며 우리를 응원해주는 아이들이 너무나 대견했다.

아이들은 이제 만세 운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친 존재가 되었다. 이 아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밝은 미래를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타올랐다. 그렇게 가슴에 아이들의 열정을 새기고 드디어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을 올라가면서 점점

긴장이 되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는 내내 마음은 계속해서 무거워졌다. 그럼에도 우리는 긴장감으로 덜덜 떨리는 손을 마주 잡고 정상을 향했다. 분명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고양감이 차올라 우리의 가슴은 당장이라도 터질듯이 두근두근 뛰었다. 그렇게 관순이와 나는 매봉산 정상에 도착하였다.

“시작하자, 언니.”

관순이의 말을 시작으로 관순이와 나는 봉화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 봉화에 불을 붙이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는 봉화를 올릴 준비를 끝마쳤다.

화륵

마음을 가다듬은 우리는 봉화에 불을 붙였다. 불을 붙은 봉화는 높은 저 나무를 넘어 밤하늘 너머로 피어 올라갔다. 봉화가 올라가자 관순이와 나는 약속이라도 한듯 눈을 감았다. 맞잡은 두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은 우리는 동시에 눈을 떴다. 눈 앞에는 봉화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우리가 올린 봉화. 단지 그것 하나 뿐이었다.

당황한 나와 관순이는 그저 서로 쳐다볼 뿐이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던 그때, 밤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화륵

하나, 둘씩 불꽃이 빛을 내기 시작하더니 8개의 봉화가 밤하늘 너머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8개의 봉화가 하늘을 밝히자 곧이어 16개의 봉화가 동시에 오르기 시작했고 밤하늘을 비추던 외로운 불꽃을 곧 밝은 24개의 밝은 불꽃으로 변화였다.

“관순…!”

기쁨에 차 관순이를 부르려던 나는 관순이의 미소를 보자 말문이 막혔다. 관순이는 내가 한번도 본적 없는 미소를 지었기 때문이다. 관순이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미소짓는 관순이의 얼굴은 그 어느때보다 아름다웠다. 눈물을 흘리며 관순이는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그 미소를 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관순이를 마주보며 함께 묵묵히 봉화를 올리는 것 뿐이었다.

Episode 3.

꽃봉오리 (임시)

웅성웅성

아직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4월 1일. 아우내 장터에서 장이 열리는 날이다. 나는 기지개를 가볍게 펴고 광창을 열었다. 아직 해는 뜨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모습이 보일 정도는 되었다. 옆을 돌아보니 태극기를 그리다 늦게 잔 관순이가 대자로 뻗어 깊이 잠들어 있었다.

‘관순이가 깊게 자는 모습을 보는건 오랜만이네… 조금 더 자게 둘까?’

관순이를 뒤로하고 나는 조용히 방에서 나왔다. 4월이라 그런지 아침임에도 꽤나 따뜻했다. 근처 풀 사이에서는 꽃봉오리들이 피고 있었다. 우리들을 응원하는 듯 수줍게 마중 나온 꽃들의 모습에 힘이 솟았다.

“언니, 일어났어?”

뒤를 돌아보자 관순이가 눈을 비비며 나오고 있었다.

“조금 더 자. 피곤할텐데.”

“괜찮아, 충분히 잤어. 오늘같은 날 늦게 자면 안되지.”

하품을 하며 관순이가 내 곁에 섰다. 그리고 관순이는 내가 보던 꽃봉오리를 바라 보며 미소지었다.

...

“이것 좀 보고 가세요!”

“맛이 아주 끝내준답니다!”

아우내에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이 열렸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우내에 모여드는 것이 보였다. 바글바글 모인 사람들이 마치 물고기 떼 같았다. 3천명 가량 되었을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아우내 장터를 가득 채웠다. 아우내에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신기한 물건들을 구경하는 아이들과 물건이나 먹거리를 파시는 분들, 그것들을 유심히 보시고 구매하시는 분들, 심지어 몰래 훔쳐가는 사람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하지만 이들중에서 빠져있는 무리가 있었다. 바로 몰래 태극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우리들이었다. 인원수가 워낙 많았기에 모두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는 일은 정말 수월했다. 잘 움직이지 못했던 남자들도 사람들에게 묻혀 거리낌 없이 움직일 수 있었다. 그렇게 모두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주었을 때 즈음 해가 중천에 떴다.

관순이는 곧 준비된 쌀가마니 위로 올라갔다. 갑자기 관순이가 쌀가마니 위로 올라가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관순이는 우리가 기차역에서부터 숨겨온 돌돌 만 종이, 독립선언서를 꺼내들었다. 그러곤 조용히 독립선언서를 펼쳤고 심호흡을 한 후 입을 열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

임을 선언한다!”

관순이의 짧은 한마디에 장터에 있던 몇명이 관순이에게 집중했다. 모두의 시선이 관순이에게 집중될 동안 기다린 후 관순이는 계속하여 낭독하였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관순이의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의 표정이 변해간다. 처음에는 가벼운 관심으로 시작했던 낭독이 곧 진지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관순이의 선언이 계속되었다.

“... 오래 전부터의 억울을 떨치려면, 눈앞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장래의 위협을 없애려면, 놀러 오그라들고 사그라져 잦아진

민족의 장대한 마음과, 국가의 체모와 도리를 떨치고 뻗치려면, 가엾은 딸 아들에게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독립선언서에 적힌 문장들을 관순이가 한글자 한글자 읽을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에 슬픔이 떠오른다.

“...2천만의 사람마다 마음의 칼날을 품어 굳게 결심하고, 인류 공통의 옳은 성품과 이 시대의 지배하는 양심이 정의하는 군사와 인도라는 무기으로써 도와 주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나아가 취하매 어느 강자를 꺾지 못하며 물러가서 일을 꺾함에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하랴!”

눈물을 삼키며 계속해서 낭독하는 관순이. 진심을 다해 문장을 토해내는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코가 찡해졌고 순식간에 울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황한 나머지 옆을 돌아보니 다른 사람들 또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눈물을 참으며 조용히 눈가를 훔치는 사람들도 나타났고 관순이의 한마디 한마디에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나타났다. 계속되는 낭독. 이 자리에 모

인 약 3000명 가량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제서야 하나로 모인 것만 같았다. 관순이의 낭독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사람들도 모두 관순이에게 눈을 떼지 못했다.

“...아아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도다. 위력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도다. 과거 한 세기 내 갈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적 정신이 이제 막 새 문명의 밝아 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였도다!”

술술 낭독이 마무리에 들어가자, 관순이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하나가 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모두가 낭독을 따라했고 중간중간 만세가 터져나오기도 했기 때문이다. 약 3천명 가량되는 사람들 모두의 시선이 관순이에게서 떠나가지 못했다. 더 이상 이것은 단순한 낭독이 아니었다. 이것은 온 마음을 다한, 우리의 진심이었으며 우리의 고백이었다.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와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공약 3장이 끝나고 민족대표 33명의 이름을 낭독하는 것으로 낭독이 마무리 되었다. 그리고 곧이어 우렁찬 외침이 들려왔다.

“대한 독립 만세!”

약속대로 조인원 아저씨를 필두로 교인분들의 선창이 시작되었다. 한번 만세가 나오자 곧이어 내가 가슴에 숨겼던 태극기를 꺼내며 흔들며 외쳤다.

“대한 독립 만세!”

곧이어 모두의 품에서 태극기를 꺼내 흔들며 여기저기서 만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대한 독립 만세!”

“만세!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장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곧곧에서 터져나오는 만세소리와 태극기. 이 모습을 보고 장관 이외에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 소수의 만세는 곧이어 모두의 만세로 이어졌고 모두의 만세는 곧 행렬로 이어졌다. 약 3000명의 시위 대열이 아우내 곳곳에서 만세를 불렀다. 만세운동의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옆동네에서도 우리의 소리를 듣고 따라 만세 운동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는 독립을 위해 외치고 또 외쳤다.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그렇게 참고 또 참았던 꽃봉오리가 한순간에 피어나듯 우렁찬 사람들의 만세 함성과 함께 우리의 아우내에서는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Episode 4.

붉은 꽃

“대한 독립 만세!!”

“만세! 만세!!”

목이 터져라 만세를 외치는 아우내의 모든 사람들. 만세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을 선두로 행렬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걸 멀리서 지켜보는 일본 헌병대장 고야마 헌병 주재소장은 적잖게 당황했다.

“멍청이들아! 너희는 만세운동이 벌어질동안 뭘 하고 있던 거야!”

“그것이...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저희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고야마는 아래 헌병들에게 억장을 내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인해 붉어진다.

“이 시위가 계속 되었다간 나는 물론 너희 모두 끝나는 거야! 알고 있는 거냐 멍청이들아!”

“대장...어쩔까요?”

부하 헌병의 물음에 고야마는 아직 분이 풀리지 않은 얼굴로 씨익 웃으며 말했다.

“발포를 해서라도 진압시켜야지.”

...

“대한 독립 만세!”

“와아아아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세운동. 관순이와 나는 시위의 앞열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만세를 부르며 태극기를 흔들었다. 우리의 앞에는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만세 운동을 주도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그들을 보니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이토록 감사하기 그지없는 분들을 내 곁에 둔다는 사실이 정말이지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나는 계속해서 만세를 불렀다. 헌병 주재소에 거의 다달았던 그때,

“토마레!! (멈춰라!!)”

일본 헌병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왔다. 일본 헌병들은 총칼로 무장하고 있었다. 우리를 본 헌병들은 외쳤다.

“데 모오 토메테, 카이산 시나케레바 핫포오스루! (시위를 멈추고 해산하지 않겠다면 발포하겠다!)”

일본 헌병들의 등장과 외침에 사람들이 주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관순이와 앞열의 주도자들이 만세를 외치는 것을 멈추지 않자 만세를 외치던 사람들의 기세는 다시금 회복되었다.

“너네 나라로 꺼져라, 이놈들아!!”

“그래! 썩 꺼져라!!”

“대한 독립 만세!!”

시위대는 일본헌병들의 명령에 불응하며 만세를 불렀다. 시위대가 계속해서 다가오자 일본 헌병들이 당황해하며 뒷걸음질쳤다. 뒷걸음질. 그 잔악무도하게 우리를 탄압하던 일본 헌병놈들이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다. 그런 일본 헌병들의 반응을 본 우리들은 더욱 활발히 만세를 외쳤다. 그렇게 우리의 만세 운동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듯 보였다.

그러나 곧이어 헌병대장이 견착자세를 취했다.

탕!! 탕!!

만세시위의 목소리를 뚫고 총성이 울렸다. 기쁨과 슬픔, 절의가 가득했던 시위가 일순간 조용해졌다. 시위대의 앞열에 서있던 김씨 아저씨의 배에서 무언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새빨간 색의 무언가. 그것은 피였다. 새하얀 배자에서 새빨간 피가 점점 퍼졌고, 곧이어 배자가 붉게 물들자, 김씨 아저씨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쓰러졌다. 김씨 아저씨 배에서 퍼져나온 피는 바닥을 적셨고, 퍼져나가는 피는 마치 붉은 꽃처럼 보였다.

“...아저씨?”

“햇포요! (발포)!”

관순이의 말과 함께 헌병 대장의 외침이 있었고 동시에 일본 헌병들이 발포를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피를 뿜으며 쓰러졌다. 1차 발포를 끝낸 헌병들은 칼을 들고 사람들을 무참히 찌르기 시작했다. 쓰러진 사람들은 짓밟고 도망가는 사람들에게는 총을 쏘았으며 가까이 있던 사람들의 몸과 머리에는 칼을 쑤셔박고 발로 찼다. 곳곳에서 김씨 아저씨와 똑같이 붉은 피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울컥울컥 쏟아지는 피를 보자 내 안에서 무언가 끓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이야야야야!!”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비명과 고함소리로 귀가 찢어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 고함소리엔 나의 목소리도 끼어있었다. 난 소리를 지르며 바닥의 돌맹이를 주워들고 헌병놈들을 향해 던졌다. 분노로 인해 말조차 잘 나오지 않았으며, 아까까지 느껴지던 공포는 눈썹듯 사라져버렸다. 머리속이 하얗게 되었으며 앞의 저놈들을 때려죽이고 싶다는 생각만이 가득했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난 물불 안가리고 바로 일본 헌병에게 달려들었다. 나를 시작으로 수십이 넘는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헌병들에게 달려들기 시작했다. 일본 헌병들의 발포에 쓰러져가는 사람들의 통곡소리가 실시간으로 내 귀에 꽂혔다.

만세를 부른것이 그렇게 큰 죄란 말인가? 자신의 나라를 찾으려 자신의 몸을 불사지르며 노력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내게 이해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

피육음이 들렸고 관순이의 아버지는 머리와 옆구리가 칼에 맞으시며 쓰러지셨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가족의 부상. 잠시 사라졌었던 이성이 돌아오고 말았다. 남편의 죽음을 보고 달려든 관순이의 어머니 또한 헌병들의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지신 것이 보였다. 가족들의 죽음을 봤음에도 정말 한심하게도 분노보단 두려움이 더 커져갔다. 피눈물을 흘리며 분노하는 사람들은 김씨 아저씨와 관순이의 부모님, 그리고 다른 분들을 들쳐매고 주재소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주재소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조선출신 헌병이 막아섰다. 그 헌병을 맞닥뜨린 사람들은 총에 맞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보다 더욱 분노했다. 그에게 약관을 던지고 뺨을 후려치는 등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너는 보조원으로 평생 일할것 같으냐? 때려죽여주마!!”

“이 개자식들아!!”

분노한 사람들로 인해 주재소는 곧 아수라장이 되었다. 헌병들을 제압하는 중 관순이가 주재소로 들어왔다.

“관순아..!!”

“언니, 괜찮아?...어?”

관순이의 시선이 쓰러진 관순이의 부모님께로 향한다. 부모님의 상태를 확인한 관순이는 눈에는 불이 일기 시작했다.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깨문 관순이는 원망 가득한 눈을 하곤 저항중인 헌병에게 달려들며 소리쳤다.

“나라를 되찾으려는 정당한 일에 왜 군기를 사용하며 우리를 죽이냐! 어디 나도 한번 죽여봐라!”

“쿠소,...앗치에 이케! (젠장...저리 꺼져!)”

“아아아아악!!”

헌병의 외침과 동시에 헌병은 군도로 관순이를 찔렀다. 군도에 찔린 관순이의 옆구리에서도 피가 세기 시작했다. 관순이가 찔리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괴성이 튀어나왔다. 공포로 돌아온 이성이 다시 날아갈 것만 같았다. 그 헌병에게 달려들려는데 분노한 조씨 아저씨가 그 헌병의 목을 허리끈으로 졸라버렸다. 목을 붙잡고 버둥거리던 그 헌병은 곧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곳곳에서 사람들의 신음이 터져나왔다. 많은 헌병들이 아니었음에도 수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했다.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던 그때, 밖에서 함성이 들려왔다.

“대한 독립 만세!!”

“이 개자식들!!”

“우리도 함께 죽여라!!”

뒤를 돌아보니 병천 시장에서 별개의 만세운동을 진행하던 주민분들이 사람들을 이끌고 주재소로 달려오고 있었다. 백여명의 주민들이 주재소를 향해 진격해오자 일본놈들의 기세가 꺾였고 우리는 주재소를 함락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태극기를 흔들었고, 쇠스랑으로 유치장을 부수며 만세를 외쳤고 독립운동 소식을 전할 때 보았던 옆 동네 김씨 아저씨는 곧바로 전화선을 잘랐다. 그렇게 상황이 역전되었다.

Episode 5.

만개하는 붉은 꽃 (임시)

그렇게 우리는 수백명과 함께 주재소 앞에서 헌병들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였다. 다수가 총칼에 맞아 상처 입었지만 결국 우리는 헌병들을 결박하여 풀어 앉힐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 헌병들의 표정이 무언가 이상했다. 전화선이 잘려 지원 요청도 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서 절망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상함을 느꼈지만 애써 지우며, 우리는 다시 만세 운동과 행렬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대한 독립 만세!”

“조선 독립 만세!!”

그렇게 계속하여 만세를 부르던 그때, 저 너머에서 트럭이 다가왔다. 트럭이 꽤나 가까이 다가오자 우리는 트럭에 태극기가 달린 것을 볼 수 있었다.

“태극기다!”

“대한 독립 만세!!”

태극기를 본 한 사람이 트럭을 향해 외치자 시위대는 환호성을 지르며 트럭으로 다가갔다. 모두가 트럭을 향해 다가가던 그때, 트럭에서 일본 헌병이 내렸다. 후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일본놈들은 이미 지원요청을 끝냈고, 지원이 올때까지 당하는 척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무장한 다수의 헌병들이 우리들의 앞에 당도했다.

“샤게키 요이!! (사격준비!)”

“다들 도망가요!!”

“핫포오!! (발포!!)”

수 많은 총성과 함께 붉은 꽃이 만개하기 시작했다. 머리와 몸통 또는 팔,

다리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꽃잎들이 옷과 땅을 적셨다. 앞열에 서있던 무수한 사람들이 쓰러지자 시위대는 흩어지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왔고 사람들은 논으로, 밭으로 충을 피해 달아났다. 그러나 헌병들은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들에게까지 충을 쏘기 시작했다.

탕탕!! 탕!! 탕!

총성이 울릴 때마다 붉은 꽃이 터져나왔고 사람들이 쓰러졌다. 발포가 시작된지 채 몇분도 되지 않았음에도 60명 이상의 사람들이 쓰러졌다.

“아아아아아악!!!”

“도망! 도망!!”

“사...사...사!!”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 문장조차 잊고선 괴성을 지르며 짐승처럼 소리를 질렀다. 시아는 붉게 물들었고 색색깔 아름다운 꽃이 피었어야 할 자리에는 비극으로 가득찬 붉은 꽃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옆을 보니 총칼에 베여 고통에 몸부림 치는 사람이 수 없이 많았으며 모두 붉은 꽃을 피우며 아우내는 절망속으로 빠져들었다. 관순이의 얼굴에 절망이 떠올랐다. 만세 운동을 계획 할때 했던 큰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이 머리를 스쳤다.

‘지금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하는 말이여?’

알고 있었다. 그러나 모른 척했다. 독립을 위해서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다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독립을 위해 몸을 바치는게 당연한 일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다치기라도 하면 어쩔겨?’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 그 사람들의 죽음과 슬픔, 고통과 상처를 간과했다. 독립과 만세운동에 정신팔려 다른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뭘 멍하니 서있는겨?!”

이웃인 한 아주머니가 내 팔을 붙드시며 소리치셨다. 아주머니의 외침에 정신이 들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주재소 인근과 시장 사거리에는 부상자들과 사망자들이 널려있었다.

“여기 있다간 너도 죽어!”

아주머니의 외침과 함께 나는 옆에 있던 관순이의 손을 붙잡았다. 관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옆구리를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관순아, 아주머니 말이 맞아. 여기 있다간 다 죽어. 일단 피하자.”

잘 움직이지 못하는 관순이를 부축하며 우리는 아우내를 빠져나갔다. 우리가 아우내를 빠져나가는 내내 통곡소리와 비명소리, 그리고 총성이 귓가를 찢었다. 관순이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었고 우리는 신속하게 아우내를 빠져나왔다.

Episode 6.

꽃이 피고 난 후 (임시)

만세 운동이 헌병들로 인해 강제 진압되고 만세 운동을 전개하던 많은 주민들과 주도자들이 헌병들에게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했다. 다행히 발 빠르게 도망간 나와 관순이는 잡히지 않았지만 밀려오는 양심의 가책과 만세 운동의 외적인 상처와 내적인 상처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았다. 내 아버지는 잡혀가셨고 관순이의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셨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를 도와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총칼에 찢려 세상을 떠났다. 그럼에도

일본 헌병들은 만세 운동의 주도자들의 씨를 말리겠다는 생각인지 우리를 마저 찾기 위해 더욱 경비를 늘렸고 우리의 집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집을 습격했다. 관순이의 집의 모든 창과 문에는 나무판자를 못박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리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헌병들의 위협 때문에 나와 관순이를 포함한 다른 주도자분들 모두 도피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유일하게 체포되지 않은 경석오빠의 도움으로 우리는 도피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헌병들이 쉬지 않고 우리를 쫓아오는 틈에 우리는 한시도 쉴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관순이는 간간히 장터로 돌아가려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그럴 때마다 관순이를 말리기 위해 정말 힘이 들었다. 그렇게 긴 시간 도피생활을 하던 어느날.

“너 관순이 아니냐?”

한 아주머니가 잠시 마을로 내려온 관순이를 알아보았다.

“누구..세요?”

“이년 마침 잘걸렸다!”

“까아아아악!”

아주머니가 다짜고짜 관순이의 머리채를 잡았다. 당장이라도 관순이를 죽일듯이 덤비는 아주머니를 보자 나는 깜짝 놀라 아주머니를 말렸다. 안 그래도 속상해 하는 애를 다짜고짜 쥐어 뜯는 모습을 보자 화가 머리끝까지 솟았다.

“아주머니는 누군데 갑자기 이러세요?!”

“이거 놔 이년아! 넌 아닐 것 같아? 네년들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아주머니의 말을 듣자 올라왔던 짜증과 화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다. 아주머니의 아들은 우리가 벌인 만세 운동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그런 아주머니에게 우리가 과연 화를 낼 자격이 있을까.

“내 아들 살려내, 살려내라고!”

“...아...”

눈물을 흘리며 원망을 토하시는 아주머니를 보자 우리는 아무말도 할 수가 없었다. 아주머니는 우리의 가슴을 붙잡고 주먹을 내리치셨다. 나는 내가 무슨짓을 한 것인지 실감이 가기 시작했다. 이 아주머니 뿐만이 아니다.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입었고 대다수는 헌병들에게 잡혀갔다. 그리고 일부는 더 이상 이세상에 남아있지 않다. 독립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정말 오만방자하고 이기적인 생각이었다. 상처입으면, 이미 죽어버리면 아무의미 없다. “...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이외에는 아무말도 할 수 없었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죄송하다는 말조차 할 자격이 없었다. 우리 때문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상처입은 사람들은 감히 어림잡을 수도 없이 많이 계셨고, 그분들은 평생을 슬픔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에게 매달리시던 아주머니는 우리를 밀치곤 돌아가셨다. 우리는 아주머니가 사라진 후에도 몇분간 움직이지 못했다. 이 사건이 있고 하루정도가 지난 후 오라버니가 공주쪽으로 피신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고 왔다. 그러나 관순이는 이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어딘가로 발걸음을 돌렸다.

“관순아, 어디가?”

“장터에 가봐야겠어.”

“거길 갑자기 왜 가는데?!”

관순이는 나의 부름에 대답도 하지 않고 장터가 보이는 언덕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완전히 뜻을 굳혔을 때 나오는 눈빛을 하고 관순이는 언덕을 향해 한걸음에 달려갔다.

“꼭 봐야겠어? 위험하다니까?”

“여기서라면 괜찮을 거야, 언니.”

“관순아, 천천히 좀 가!”

계속 뜯어말렸음에도 관순이는 기어이 장터가 보이는 언덕위로 오르기 시작했다. 언덕위에 올라서자마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쓰러진 사람들을 돕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관순이는 움직임을 멈추었다.

“김씨, 조금만 참아!”

“여기 물 한잔만 갖다 주셔!”

신음소리와 통곡소리가 끊기는 일 없이 계속해서 귀를 찢어온다. 살이 벗겨진 팔을 잡고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냇을 잃고 허공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어머니를 흔들며 눈물을 흘리는 아이도 있었다. 장날이 열렸던 신나는 날. 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어야 할 그곳에 웃음을 짓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곳에 있었던 것은 절망과 슬픔, 고통뿐이었다. 그리고 이 비극의 원인에는 우리가 있었다.

“.....”

내 옆의 관순이는 아무말 없이 냇을 넣은 듯하면서도 슬픈 듯, 아리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관순아, 이제 가야해.”

“.....”

관순이와 나는 헌병들의 핵심검거 대상. 장터의 모두들에게 죄책감이 들었고 죄송했지만 이곳에 오래 머무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관순이는 대답이 없었다.

“관순아...?”

“....”

관순이는 대답이 없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관순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

“.....뭐?”

처음에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한번 물었다. 제대로 듣지 못해서 묻은 말이 아니었다. 관순이의 말이 거짓이기를 바라면서, 내가 잘못 들었기를 바라면서 한 물음이었다. 그럼에도 관순이는 친절하게도 다시한번 말해주었다.

“혼자 가. 난 안갈거야.”

“관순아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때문에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죽었잖아. 나 살겠다고 계속 도망다닐 수는 없어.”

“그래서 죽으러 가겠다고?”

“내가 언제 죽는다고 그랬어? 잠깐 다녀오는 거야.”

“이 바보야!” 지금 내려가겠다는 말이 죽으러 가겠다는 말이란 뭐가 달라! 나도 슬퍼! 김씨 아저씨, 큰아버지 돌아가신 거, 우리 아버지 잡혀가신 거랑 다른 분들 다치신 거 나도 슬프다고! 그래도 살아야지, 남은 사람은 살아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지!”

나는 관순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소리쳤다. 나의 외침에 관순이는 조용히 미소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언제부터였을까. 관순이가 이처럼 조용히 웃기 시작한 것이.

“언니, 언니의 말에는 틀린 부분이 있어. 그분들은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게 맞지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게 아니야. 그분들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거야.”

“...그런거 나도 알거든?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게 아닌데 우리가 왜 대신 살아야 해?”

“...뭐?”

“내가 해야할 건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열심히 사는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들의 위해서라도

스스로 내려가는 거야. 언니, 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그냥 숨어서 살라고? 그분들이 살 뉘까지 대신 살면서?

예도 언니, 난 그렇게 못해. 그렇게 부끄럽게는 못살겠어.”

애칭이 아닌 내 이름 예도. 관순이는 진심으로 고집을 부리거나 진심을 담아 자신의 의견을 전할 때마다 나를 이름으로 불렀다. 때문에 나는 지금의 관순이가 어떤 상태인지 예측할 수 있었다. 지금 내 눈앞의 관순이는 내가 어떤말을 하든 절대 듣지 않는다.

그럼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관순아...제발...남은 네 동생들은 어찌려고 그래?”

동생들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관순이의 눈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 동요는 잠시뿐이었다.

“괜찮아...올케가 있으니까.”

...틀렸다.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는 관순이가 동생들을 올케에게 맡긴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 순간 내가 생각해낸 답이다. 더 이상 관순이를 설득할 수는 없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에 가족을 들먹이면? 이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한 행동이었으나 이제 틀렸다. 관순이는 이제 내 곁을 떠난다.

“언니...미안해.”

관순이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어

디선가 보았던 장면이다. 그러나 표정이 달랐다. 분명 미소를 짓고 있었고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내가 매봉산에서 보았던 그 미소가 아니었다. 그 미소는 어딘가 슬퍼보였고 아련했다. 그럼에도 그 미소는 매봉산에서 보았던 미소보다 아름다웠다.

와락!

관순이를 껴안는다. 이제 관순이는 나와 함께 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자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다. 정말 많은 양의 눈물이었음에도 장날에 만개하던 꽃과 비교하면 터무니 없이 적은 양이었다. 이를 실감하자 더 이상 억지를 부릴 순 없었다. 관순이의 눈에도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렇게 우린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한참을 울고 난 후 관순이는 나를 놓고 뒤돌아섰다. 관순이는 이제 내 곁을 떠나간다. 그럼에도 잡지 않는다. 아니, 잡을 수 없다.

그러니 기도한다.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일본놈들의 손아귀에서 해방되는 그날 모두와 함께 만나게 해달라고. 붉은 꽃이 아닌 색색들이 화려한 꽃이 피는 그날, 그녀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나는 간절히 기도한다.

End.





〈2021년 11월 15일 류제웅 선생님과과의 만남〉

같은 병천 하늘 아래에서...

1919년 4월의 함성과 총성은 온데 간데 없고, 벌써 백년을 훌쩍 넘어 2021년 가을, 병천의 장 날은 매우 평화롭습니다. 만세소리 외쳤던 아우내 장터 자리는 인적 드문 공원이 되어 가끔씩 오가는 사람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 있네요.

1년 전 어느 날, 천안 삼거리 어느 건물에 그려진 유관순 캐릭터를 보고 시작했던 ‘유관순과 함께’ 시리즈 수업은 이 한권의 소설과 이후에 완성 될 세 권의 그림책으로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처음 시작했을 무렵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차츰 만나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분은 사애리시 선교사님입니다. 그렇게 유관순 열사의 부모형제와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을 통해 소녀 유관순, 신앙인 유관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는 유열사의 두려움을 상상해보았으며, 암흑 같던 당시에 소망을 잃지 않는 유관순을 상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편의 소설을 지었습니다.

저희의 상상에 큰 줄기를 먼저 그려주신 서만철 교수님과 류제웅 선생님, 류효상 천안 쌍용지구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도서를 통해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품었던 유관순 열사의 뜻이 같은 병천 하늘 아래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달되기 바랍니다.

〈유관순과 함께 춤을〉 지도교사 윤창권